

광명소방,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소방활동 대책 추진

태풍,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운영 매뉴얼 제작으로 철저한 소방활동 종합대책 확립

기사입력시간 : 2024/07/02 [17:00:00]

임지운기자



▲ 광명소방,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소방활동 대책 추진

[경인저널=임지운기자] 광명소방서는 지난 1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더욱 철저한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올해 우리나라의 기상청 전망에는 7월~9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높다. 또한 여름철(6월~8월) 연근해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

이 높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.

실제로 지난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(사망·실종) 통계에 따르면 총170명 중 최근 5년 동안 피해가 150명이며, 최근 5년 동안 피해 중 131명(77%)이 호우 피해, 39명(23%)이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보였다.

이에 광명소방서는 ▲인명피해 및 침수우려 지역 관리정보 현행화, ▲수난구조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%가동 및 출동태세 유지, ▲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사전 협력체계 강화 등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했다.

또한 ▲자연재난 위기경보 및 대응체계 확립, ▲자연재난 대비 운영 매뉴얼 제작으로 철저한 긴급구조 대응, ▲실시간 현장정보 공유로 관계기관 지원 강화, ▲안전관리 최우선의 대원 현장활동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.

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“올해 여름 장마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, 예년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로 집중호우 발생 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전했다.